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해암 스님(3)

시자, 만일 객승이 스님께 “부처님 없는 세계를 가져오면 담뱃재를 털지 않겠습니까?”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해암, (주장자로 시자를 때린다)

어떤 남자가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연기를 불상에 뽕고, 게다가 담뱃재까지 부처님 손바닥에 탁탁 털고 있었다.

법당 일 보던 노전승이 나타나 호령하며 따졌다. “감히 어찌 담뱃재를 부처님 손에 타느냐?”

객승이 답했다. “스님, 법당 주연을 보시지요.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 써 있으니, 도대체 어디에 재를 털어야 한단 말이요?”

이 법문을 나중엔 시자가 듣고 해암(惠庵, 1886~1985) 스님께 여쭙었다.

“만일 객승이 스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없는 세계를 가져오면 담뱃재를 털지 않겠습니까?’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해암 스님 이 시자를 주장자로 때렸다. 그러자, 시자가 또 물었다. “담뱃대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해암 스님이 다시 한 번 때렸다. 이 신문답을 알아들으려면 황벽 선사의 선화(禪話)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엽관 선사 회상에서 황벽 선사가 공부할 때의 일이다. 당나라 혜불의 주역인 무중을 피해 절로 도망쳐 온 한 사미승(뿔날 선종황제가 된다)이 황벽 선사가 지극정성으로 목탁을 치면서 예불하고 있는데, 질문했다.

“부처(佛)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승(僧)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 어디에다가 예불을 하십니까?”

제법 아는 체하는 사미승의 질문에, 황벽 선사가 답했다. “불에도, 법에도, 승에도 구하지

않고 늘 하는 예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미가 알아들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예불은 해서 무엇 합니까?”

그러자 황벽 선사가 그 사미승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사미가 “스님께서서는 후학을 너무 거칠게 다루십니다” 하고 반발하자, 황벽 스님은 “언어맞아도 쓴 놈이 무슨 거칠게 다루니 마느니 할 게 있느냐?” 하고는 연거푸 두 대 때렸다.

법당에서 부처님 손바닥에 담뱃재를 털 선객은 법계에 충만해 있는 법신(法身)에 대해 알았지만, 형상 있는 불상 역시 법신의 나뭇잎 줄은 풀었다. 부처라는 관념에 걸리지 않고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척 했지만, 부처

를 구할 것이 공경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해암 스님은 삼세 동안의 번뇌를 끊어주는 자비의 몽둥이를 통해 ‘부처 없는 세계’를 시자에게 대신 보여 주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릇 있는바 상(相)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지만,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여래를 보게 된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고 하셨다. 꿈같은 세상을 꿈이라고 아는 사람은 곧 ‘환상에서 벗어나 깨어나기에(離幻即覺)’ 법계에 충만한 법신과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도가>의 ‘무명의 참 성품 이대도가 부처님의 성품이고, 허깨비같은 빈 몸 이대도가 법신이라(無明實性 卽佛性 幻化空身 卽法身)’는 경지가 아닐까.

대원 거사의 이런 선행문은 기초교리는 물론 선어록에 등장하는 공안(公案)에 대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읍현리, 소리고개(香峴里) 산길을 따라 펼쳐진 6000여 평의 부지위에 4개 동의 건물이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국제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11월 11일 오전, 대웅전에 참배하기 위해 올라가니, 선원장 증오 스님이 대웅전 아래 건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기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선방을 짓고 있는 현장에는 스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 막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정규(百丈淸規)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50여 평에 달하는 웅장한 대웅전을 사부대중이 직접 지었다는 증오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불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오 스님으로부터 선원의 연혁과 절 설립살이를 들으니, 철저한 자급자족의 수행공동체임이 느껴졌다. 게다가 이 곳 본원을 비롯해 광주, 서울, 부산 등지에 머무는 40여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대원 문재현(71) 거사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했다. 그것은 대원 거사가 경허-판공 선사의 법을 이어 ‘지혜제일’이라 불리었던 전강(田岡, 1898~1975) 선사의 인가제자로서 선법을 드날리고 있다는 자부심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대웅전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몰려온다. 대원 거사의 정기 선법문이 있는 날이다. 200여 출·제가 대중이 청법가를 울리자 대원 거사가 <선문연송>의 ‘열화미소(拈華微笑)’ 공안을 인용하며 법문을 시작한다.

“이날 존자가 가섭 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 존자에게 금란가사를 전한 일 이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가섭은 ‘아난이여!’ 라고 불렀다. 아난은 ‘예’ 라고 대답하니, 가섭은 ‘문전의 활강(刹竿)에 걸려있는 것발을 활거하라(倒却門前刹竿着)’” 라고 말했다.”

여기서 가섭이 “아난이여!” 하고 부르고, 아난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이십전십의 전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이 활강에 것발을 내세워 설법이 있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문이다.

대원 거사는 홍성-전강 선사의 선법문에서 전강 스님이 “예!”하고 대답한 기연 역시, 가섭과 아난 존자의 선문답과 유사하지만, 아난 존자는 당시에 깨닫기 전이었기에 물렸고 전강 선사는 알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즉, 어느 날 용성(龍城, 1864~1940) 선사가 전강 스님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나?)”하고 물었을 때, 전강 스님이 “예!”라고 답하며 제일구를 곧바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대원 거사의 이런 선행문은 기초교리는 물론 선어록에 등장하는 공안(公案)에 대한

고희의 나이 잊고 ‘전법도생’ 온 힘

<傳法度生>

거사선의 리더들 9- 대원 문재현 거사

사건지식 없는 알아듣기 어렵다. 그럼에도 선원의 대중은 난해한 공안집인 <선문연송>과 <벽암록> <전통록> <무문관>은 물론이요 <신심명> <중도가> <선가귀감> 등의 선어록을 꾸준히 공부하여 이미 상당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이 엮을 수 있었다.

물론 육조정맥선원의 수행자들이 화두 참구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원 거사는 일상 속에서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자재하게 쓰는 공부를 강조한다.

“이 현실 속에서도 성공하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나 일할 때 이외의 길을 걷는 다든가 화장을 걷는 다든가 차를 기다린 다든가 이런 공백을 호리(毫釐)도 헛되이 버리지 마라. 시간 없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공백을 놓치지 마라.”

대원 거사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늘 “방심(放心)하지 마라”고 당부한다.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어묵동정)이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되도록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빛이 하나같이 선객답지 않게 곱상하면서 밝고 맑은 빛이 감도는 것은, 늘 스승의 지도·점적 아래 본래면목을 여의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마음공부를



선법문을 하는 대원 문재현 거사(위), 선법문을 들기 위해 모인 200여 명의 출·제가 대중들(아래).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상생활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마스터 권희라

수행개시판: \*직장인 동안거 참선서울 정릉 보림선원은 직 장인을 위해 동안(11:24~22:17)간 동안 매일 저녁 7~9시 백봉 김기추 거사의 법문을 듣고 좌선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017)332-4096 \*정토수행으로 본 유마강-양산 정토원 원장 정 목 스님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7~9시 부산불 교교육대학에서 정토수행으로 본 유마강을 강 의한다. (051)711-0700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노래방기기 설치: 추천상품 베스트상품: 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영상의용기기: C/S 스피커: 두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